



사회=이건철 김수관 서정성 김중식 조호권 정현애 윤봉근 김왕복 강경환 이호준 양혜령 박윤모 정진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집담회- 지역 리더들에게 광주·전남 길을 묻다

“지역발전 힘은 인재양성... 민간 리더들이 적극 나서야”

지난 23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4층에서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집담회(集談會) ‘지역 리더들에게 광주·전남 길을 묻다’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리더로 활약중인 원우들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소주제를 정해 발표했다. 집담회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지난 23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 호텔 4층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원우들이 ‘광주·전남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수관 조선대 차과대 학장=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역발상을 통한 변화를 시도해봤으면 한다. 한 예로 자살, 역경, 인연 등의 단어를 뒤집어 보면 살자, 경력(역), 연인 등의 새로운 희망을 담은 단어가 된다. 모두가 행복한 광주·전남을 위해서는 지역민도 변화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인색한 지원에 대한 꾸념을 내려놓고, 지역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민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 교육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호준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광주시 교통여건은 수완지구 등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이동거리가 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매년 4%씩 증가 추세다. 교통혼잡 비용만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광주시민들은 10년 후엔 도심혼잡과 주차난 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대비책으로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3년까지 1조7400억원(국비 60%) 투입해 완공하는 게 목표다. 2호선이 완공되면 광주시민 71%가 지하철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2호선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자치단체의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기 지원을 제안한다. 분쇄식과 건조식, 미생물발효소별식 등이 있는데 관련 기기의 대당 구입비는 10만~20만원 수준이다. 이를 1만가구에 보급했을 경우 연간 7300t(처리비용 5억여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주민들도 냄새 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집에 보관했다가 들고 나와 버려야 하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박윤모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시티노믹스를

5년후 대비 지역 대선 후보 키워내길

‘민주·인권’ 광주정신 국제나눔으로 승화

▲서정성 광주시의원=광주의 미래는 나눔에 있다고 본다. 나눔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만에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다. 자원봉사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는 특히 5·18 정신의 국제화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만의 장점이 나눔으로 확대된다면 도시 이미지 상승은 물론 광주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김중식 원도군수=지난해 말 대선 이후 광주·전남 시도인들은 공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11년째 지내면서 이번 대선만큼 많은 생각을 했던 선거도 드문드문하다. 우선 왜 대통령 후보는 모두 경상도 사람인가, 호남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상하다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많은 의문이 생겼다. 특히 5년 후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역 언론에서도 이 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답이 없다.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5년 후를 대비해 지역 대선후보를 찾아내고 키워내야 한다. 그 역할을 지역 내 민간 리더그룹들이 해야 한다.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조호권 광주시의회의장=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기획단장을 맡았다. 지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지역 정치권은 대선 이후 지금까지 전혀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5·4 전당대회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광주·전남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있다. 이번 추경만 봐도 지역 대선 공약이나 현안사업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런 사업을 정부사업에 넣을만한 인적 네트워크도 붕괴한 상황이다. 아권의 힘을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

▲정현애 광주시의원=광주·전남 스스로 힘을 만들어야 할 시기다. 우선 인재양성이 중요하다. 한 예로

광주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문화로 먹고 살겠다고 하면서도 문화 인재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반면 부산 등은 10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재양성을 행정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에서도 노력하자. 여러 형태의 민간 장학금 등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이다.

▲윤봉근 광주시의원=진보교육을 내건 새로운 유형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광주시민의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현재 광주교육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력 극대화에 실패했고, 사립학교의 자율권도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 광주의 경쟁력 중 하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광주’였다. 교육도시답게 성적도 전국 최고였다. 교육정책에 실패가 있어선 안된다. 교육은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피해를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실력 광주의 옛 명성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교육문제는 너무 어렵다. 교육은 일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 교육도 결국 재정지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재정지급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다 보니 지자체의 교육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교육은 제가 광주시부교육감이던 15년 전만 해

도 교단선진화를 통해 전 교실을 멀티미디어화하고 컴퓨터 배치해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일부 교실에는 15년 전 마련했던 교탁이 그대로 있는 곳도 있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정부의 신규 교육사업 관련 예산을 잘 파악해 광주·전남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전략이 요구된다.

▲강경환 전 송광중 교장=요즘 교육현장은 너무 힘들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매를 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광주 모 학교에서는 학생 4명이 짜고 교사를 괴롭힌 사건이 있었다. 교사가 한 학생에게 “너 아침밥 먹었니?”라고 물어본 것을, 해당 학생이 “선생님이 너 거지라서 아침밥 못 먹었지”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전에 모의한 친구를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 모 학교 교감은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했고,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못한다. 교사들이 수업 전 학생들에게 ‘앉아, 앉아’만 외치다가 10여분이 지나가는 것은 예상외였다. 이것이 광주교육의 현실이다. 광주의

제한한다. ‘city+economics’의 합성어인 시티노믹스는 경제, 문화, 예술, 친환경성을 고루 구비한 도시가 살아남고, 각광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의 시티노믹스를 통한 문화발전 전략으로 우선 역사와 문화를 접목했으면 한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어두운 역사를 관광자원화하는 ‘다크투어리즘’을 활용토록 하자. 세계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콘텐츠화해야 한다.

▲정진구 히딩크 호텔 회장=중국 관광객은 물론 대중국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 광주는 중국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있다. 바로 중국 3대 음악가이며 영웅칭호를 받고 있는 정윤성 선생의 생가다. 현재 수많은 중국 관광객이 정윤성 생가를 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주변에 정윤성 생가가 있는 것도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문화전당과 정윤성 생가를 연계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실력 광주’ 옛말... 교육 경쟁력 확보 시급

문화전당-정윤성 생가 연계 中관광객 유치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재지: 광산구 산정동
- 면적: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지목: 잡종지
- 입지조건: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축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락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월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용임지구
입구 35m대로변 코너 주차면1 매2억46천만 원 (카센터,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공장 창고 부지
나주시 송촌동 동신대 인근2차선도로 접 지역
녹지 전16,200㎡(4,900평) 매가 3.3㎡당 20만 원 (공지, 창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적합)

행운공인중개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할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시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임대가능

1층,2층,3층,독채

시설완벽

시비없음

010-3701-4767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환도로 호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순환사거리편)